

현안과 과제

■ 금강산관광 19주년의 의미와 과제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목 차

■ 금강산관광 19주년의 의미와 과제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Executive Summary	i
1. 금강산관광 현황	1
2. 금강산관광 19주년,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
①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3
② 금강산관광 재개의 남북관계 영향	4
③ 금강산관광의 의미	5
④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	5
⑤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전망	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통일연구센터 :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오는 18일 19주년을 맞게 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다수의 전문가들(86.8%)은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소수(13.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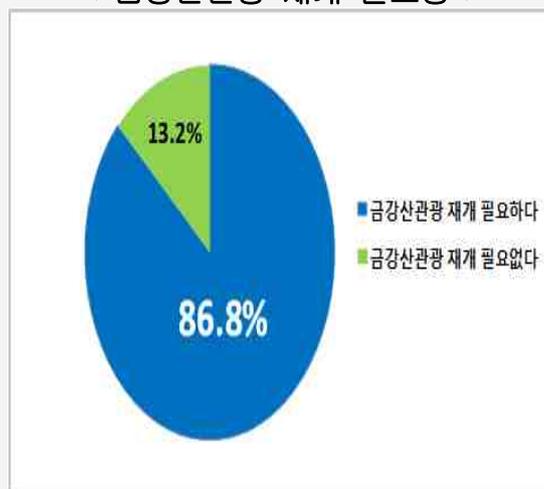
(금강산관광 재개의 영향)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8%)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소수(13.2%)에 불과했다.

(금강산관광의 의미) 전문가의 90.8%가 금강산관광의 의미는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라고 응답했으며,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소수(9.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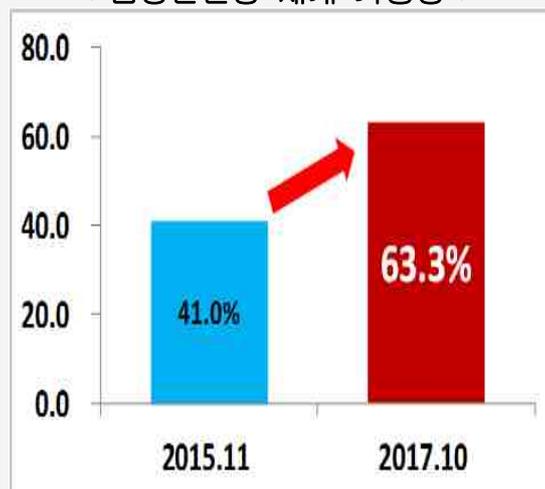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 전문가의 88.7%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현 정부 내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2015년에 비해 긍정적 응답(2015년 41.0%→2017년 63.3%)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



<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



1. 금강산관광 현황1)

○ (추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연간 40만 명의 남북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중단되어, 현재 중단 9년째를 맞고 있음

- 배경 :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민간 기업인 최초로 관문점을 통과하는 방북을 실현,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을 논의하면서 본격적 해빙 무드 조성
- 관광 개시 :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의정서 체결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
 - 이는 1989년 1월 「금강산관광 개발 의정서」 체결 후 10년 만에 실현된 것임
- 관광 방식의 다변화 : 해로에서 육로관광으로, 다시 승용차관광으로 방식 확대
 - 1998년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2004년 해로관광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 승용차관광이 실시되었음
- 관광 일정의 다양화 : 2004년부터 당일관광, 1박2일 관광, 2박 3일 관광 등으로 관광 일정이 확대되었음
- 관광 코스의 확대 : 초기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강과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방
 - 2007년부터 내금강 관광이 실시되면서 관광 코스가 확대
- 연간 40만 명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중단 : 2005년부터 남북관광 30만 명 시대가 열렸고,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명에 달함

< 연도별 금강산관광객 추이 >

(단위 : 만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6

자료 : 현대아산.

1)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에서 발간한 “금강산관광 16주년의 의미와 과제”, 『현안과 과제』 제14-43호 (2014)를 수정·보완한 것임.

- (금강산관광 시작의 의미)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대규모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
 -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 수행 : 정부당국간 교류와 민간의 인적 교류를 개방하여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자유롭게 밟고 북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민간사업
 -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민간의 관광·경험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
 - 대규모 남북 민간 경험시대의 서막을 연 사업 : 1990년대 초반부터 미미하게 이루어지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의 남북경협이 본격적인 투자단계로 발전
 -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었으며, 통일 한국에 대비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 :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
 - 금강산 사업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대회와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은 각종 국제대회의 동시 입장과 응원으로 연결,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확대의 지평을 열었음
 -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동시 입장 및 응원을 비롯해, 각종 체육·문화·종교 행사로 이어짐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금강산관광 19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전문가들이 금강산관광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함

2. 금강산관광 19주년,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금강산관광 19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 : 2017년 10월 25일 ~ 11월 3일 (10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98명
- 조사 내용 : 금강산관광 재개의 추진 방향과 의미 등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설문 내용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 - 금강산관광 재개의 영향 - 금강산관광 재개의 의미 -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사 -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주 : 2014년 3월, 2015년 11월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음.

2) 조사 결과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
- “귀하께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6.8%(매우 필요 63.3%+약간 필요 23.5%)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

- 성향별로는 진보가 97.4%로 가장 높았고, 중도 90.9%, 보수 66.7% 순으로 응답
-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13.2% 수준에 불과했고,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3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

(%)

구분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필요하다	63.3	40.7	57.6	84.2
약간 필요하다	23.5	26.0	33.3	13.2
별로 필요없다	10.2	22.2	9.1	2.6
매우 필요없다	3.0	11.1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7.10.

○ (금강산관광 재개의 남북관계 영향)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

-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귀하는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
- 이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소폭 하락했지만(2015년 96.5%→2017년 90.8%), 여전히 절대 다수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정치성향 별로도 대부분 긍정적 영향의 응답 비중이 높았고,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전체 3.1%(보수 11.1%) 수준에 불과

< 금강산관광 재개의 남북관계 영향 >

(%)

구분	2015.11	2017.10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긍정적 영향	49.3	52.0	37.0	45.5	68.4
다소 긍정적 영향	47.2	38.8	44.4	48.5	26.3
별 영향 없음	3.5	6.1	7.5	6.0	5.3
다소 부정적 영향	0.0	0.0	0.0	0.0	0.0
매우 부정적 영향	0.0	3.1	11.1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11, 2017.10.

○ (금강산관광의 의미)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금강산관광은 '통상적인 단순 관광 상품'이 아니라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귀하는 지난 시기의 금강산관광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90.8%(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 61.2%+상호이해의 창구 29.6%)가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라고 응답

- 이전 조사와 비교하더라도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2014년 92.0%→2015년 93.1%→2017년 90.8%)
- 금강산관광이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전문가 응답률은 소수(9.2%)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

< 금강산관광의 의미 >

(%)

구분	2014.3	2015.11	2017.10			
			종합	보수	중도	진보
통상적인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	8.0	6.9	9.2	14.8	12.1	2.6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의 창구	30.6	43.1	29.6	40.8	21.2	28.9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	61.4	50.0	61.2	44.4	66.7	68.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3, 2015.11, 2017.10.

○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에 방문하겠다고 응답

- “귀하는 향후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방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88.7%가 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은 90%대의 높은 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지(2014년 89.8%→2015년 93.1%→2017년 88.7%)
- 정치 성향별 방문의향을 살펴보면, 진보가 94.7%로 가장 높았고, 보수의 경우도 상당수인 74.1%가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이 있다고 응답

< 금강산관광 재개 시 방문의향 >

(%)

구분	2014.3	2015.11	2017.10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많다	89.8	93.1	67.3	48.1	69.7	78.9
다소 있다			21.4	26.0	24.2	15.8
별로 없다	10.2	6.9	8.2	14.8	6.1	5.3
전혀 없다			3.1	11.1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3, 2015.11, 2017.10.

○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전망)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2015년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크게 증가

- “귀하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높은 편’의 응답이 ‘낮은 편’에 비해 26.6%p 높음
 - 이전 조사인 2015년에는 부정적 응답 비중(58.8%)이 높았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63.3%)이 부정적 응답 보다 높음
 - 정치 성향별 재개 가능성을 살펴보면, 중도가 69.7%로 가장 높았고, 보수의 경우도 절반 수준인 48.2%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전망 >

(%)

구분	2015.11	2017.10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높은 편	4.2	12.3	3.8	24.2	8.0
다소 높은 편	36.8	51.0	44.4	45.5	60.5
다소 낮은 편	47.9	30.6	44.4	21.2	28.9
매우 낮은 편	11.1	6.1	7.4	9.1	2.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11, 2017.10.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